

2018년 12월 23일 “복음의 여정(11-성탄절) 구유의 신비 속에서”(눅 2:1-14)

<도입>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간 앗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 식민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줄 구주를 더욱 열망했고, 구주의 도래는 자신들이 만방에 우뚝 세워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가 패권을 잡은 때에 마구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구주가 탄생했습니다.

[1] 아기 예수와 제국의 황제

누가는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었다는 말을 세번 반복합니다(7, 12, 16 절). 그리스도(구주)는 만국에 대망의 구원을 베푸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황제보다 더 큰 위상을 가지고 오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 같은(오히려 못한) 조건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기로 오셔서 양육 받으며 성장하시기까지 동일한 조건 아래서 사셨습니다.

본문은 로마 황제의 권세와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누가 더 하늘에 합당한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룰 것인가? 그는 확신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아기 예수가 참 구주요 참 왕이심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2] 인간과 동일한 조건을 지닌 구주

히 2:17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새번역)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없는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없겠지요? 그것은 구주의 조건이 못됩니다.

히 4: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새번역)

우리와 같은 조건을 경험 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연민으로 말미암아 징벌과 정죄함으로 고치시지 않고 사랑과 긍휼의 능력을 입게 하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요 8 장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의 긍휼/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구별될 수 있었던 점은 성숙의 수준입니다. 아버지 뜻을 기뻐하시고 듣고 순종하신 삶의 방식이 그분을 인간으로서 최고의 성숙으로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히 5:8-9).

[3] 구유 속에 누인 아기

다시 구유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인 구유는 인간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을 제일 처음 맞이한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 세상은 어둡고 비천했습니다. 제국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실체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에서 그분은 이렇게 가난하고 천한 곳을 찾아 내셨습니다.

(1) **개인적 차원** 주님은 나의 가장 선하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어둡고 비천하고 감추어진 구유와도 같은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나의 깊이 숨겨진 곳, 두려움과 수치를 감춘 곳, 치명적 약점과 가장 큰 아픔의 자리에서 나와 대면하기 원하십니다..

나의 내면에 미움이 남아 있는 자리, 분하고 억울한 자리, 아프고 상한 자리, 무능과 수치가 감추어진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은총과 평화의 싹이 돋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황제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 내버려 두시며, 내게 가장 약하고 아픈 곳을 나누어 달라고 하십니다.

(2) **사회적 차원** 주님은 기득권층이 자기 이익을 위해 화려하게 꾸며 놓은 권력의 자리에 앉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초관심은 세상의 낮고 천한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눅 4:18). 물론 명예와 인기와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반감이 일어나기 쉽고 불평하고 돌아서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욱 참 신앙에 절실해야 합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 주님이 오신 탁월한 장소의 선택은 구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upside down 되기 시작한 것을 누가는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제국의 아구스도 황제도, 유대 왕 헤롯도,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있던 총독 빌라도도, 모두 권력 서열로는 예수님보다 위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권세가 구유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권세는 시스템과 구조적인 힘의 권세가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긍휼과 사랑의 참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현실을 조정하여 힘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무시하고 있는 내 삶의 한 구석에 버려진 초라한 구유에서 뿜어지는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크신 권세를 나의 권세로 받아 누리시는 축복이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세상의 화려한 보좌와 주님의 낮고 비천한 자리(구유~십자가)는 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나를 구원합니까?)
2. 나의 내면에 아기 예수를 누일 구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3. 올해 성탄을 통해 내 인생에 성탄(거룩한 주님의 드러나심)이 있게 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을 한 가지 나누어 봅시다.